

## 녹슨 은수저의 비밀

<가작>

김 정 숙  
(경기도 인천시 상인천 여자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내일은 온양으로 여행가는 날이다.

식사를 할때면 나의 벗이 되는 은수저를 반질 반질 하게 닦아 놓고 내일의 여행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 했다.

내가 지난 여름방학때에 시골에 다녀오게 된 후, 나의 은수저는 퍼렇게 녹이나 있었지만, 내일의 여행날을 맞아 한층더 깨끗하게 닦아 놓으니, 어딘지 모르게 이 수저에게 전보다 더 밀접감을 느꼈고, 앞으로는 꼭 이 은수저로 밥을 먹겠다고 다짐 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길을 떠나 농촌의 모습과 향긋한 풀냄새와 흙냄새를 마음 속속까지 흠뻑 마셨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으로 들어가 저녁식사가 끝난 후

“아주머니 이 수저좀 닦아 주시겠어요?”

하고 부탁 했더니

“오냐, 깨끗이 닦아 주지.”

하시며 곧 닦아 주셨다.

호뜻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마친뒤, 잠자리에 누웠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앗!

깜짝 놀랐어요, 은수저에는 검은 녹이 슬어 있었읍니다.

“집에서는 며칠씩 놓아 두어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수저로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어머니께서는 다른 은수저를 준비해 주셨지만, 자꾸 녹슨 은수저 생각이 나서 며칠간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바뀌어 그 다음 겨울방학때에 언니와 함께 온양의 이모댁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수저만은 꼭 가지고 다니는 성질에 이번에도 역시 은수저와 같이 나들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밤을 지나 그 다음 날, 은수저에도 검은 빛이나고 있지 않겠어요.

지난 여행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때 일은 그냥 잊어버렸으나 두번째 일어난 이신비스러운 일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언니에게 물어보니

“네가 언제나 수저를 가지고 다녀서 그 나쁜 벌을 받은 거야.”

하고 간단히 대답 했지만 그 의문을 풀지못해서 궁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으나 좀처럼 이 일을 잊어버릴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왜? 왜? 아유 참!

“인천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온천에 올때마다 일어난 현상”

혹시……

언니가 온천물을 조금 얻어 온 것이 있어 다시 은수저를 그 위에 올려 놓고, 스케이트장에 다녀오니, 생각대로 수저에는 검은 빛이 나고있읍니다.

아, 그 이유가 있었구나!”

지난 방학에 온천에 가서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옆에 있던 삼촌이 그것이 바로 유화수소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났다.

이 냄새만 나면 은수저가 검은 빛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범인은 유화수소로구나!

이 사실을 알아낸 나는 과학자 라도 된것 같은 기쁨을 느꼈읍니다.

왜, 이것을 진작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태웠을까?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제일먼저 전해야 될까?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려고 몇번 했지만, 그냥 말하기는 참으로 아까웠읍니다. 이 다음에 발명가란 이름이 붙어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광경을 보고 싶었고, 또 하나의 상상으로 빠졌읍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다시 찾아서 온천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은수저나 그 밖에 은으로 만든 물건은 모두 쓰지 말라고 하루바삐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한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삼촌에게 만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읍니다.

당장에 서신을 띄웠읍니다.

편지 답장과 온천물 한 통을 보내 달라고 간절이 부탁했읍니다.

그리고 곧장 급방을 경영하시는 “돼지 아저씨”를 찾아가.

“아저씨, 혹시 온천에 사람들이 오시면 은수저나 반지를 팔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니 갑자기……”

나는 아저씨께 자세히 말씀 드리니

“으하하 허허”

큰 입을 벌리고 한 바탕 웃고 나신 다음

“오냐 오냐 알았다. 하참 고녀석 애국자 되겠는 걸.”

하시며, 밤이 깊었다고 차비 100원을 주셨다. 한참 사양을 했으나 고집이 센 아저씨에게 저서 차비를 받아야만 했다.

때 마침 빈 택시 한대가 오니 아저씨는 얼른 잡았다.

“아네요 아저씨 저 여기 친구집에 좀 들렀다가야 해요.”

하고 운전수 아저씨께 사과를 한 다음 나날이 붙어 가는 저급통장이 생각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삼촌에게서 편지는 왔는데 온천물이 온 흔적이 없었다. 편지는 읽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두리번 두리번 온천 물이 왔나만 찾아다녔다.

어머니께서

“성숙아 뭘 그렇게 찾고 야단이니 응?”

“온천물 말야 온천물”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온천물 안왔어요?”

“아니 애가 낮잠을 자더니 잠꼬대를 하나 잡자기 온천물은 왜 찾고 그러니?”

그때 옆에 있던 언니가.

“엄마 저렇게 헛소리를 하면 때려 주어야 한대요. 내가 때려 줄까?”

옆에서 약을 살살 올렸다.

이젠 더 이상 숨길수가 없어서 저번에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니 그때서 좀 알았다는 듯 약간 이해하시는것 같았다.

그리고 삼촌의 편지를 읽고난 나는 큰 실망을 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일을 내가 처음으로 알아낸 줄 알았는데, 삼촌은 이미 다른 과학자에 의하여 발견된 일을 책을 읽어서 알게 되었고 또 배워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삼촌은 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한 일을 전연 모르고 끝까지 알아낸 일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선생님께나 혹은 아무에게 라도 물어서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다.”

하시는 삼촌의 편지 내용에는 대견해 하시는 마음이 가득차 있었다.